SV Times

2019년 2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SV Times 07호

1. Essay

**열정 가득 무대 밖,**

**함께 하는 나눔의 ‘맛’**

배우 김지우 & 셰프 레이먼킴 편

‘꿈의 무대’였던 뮤지컬 작품 ‘시카고’가 막을 내리면서 ‘록시 하트’, 아니 배우 김지우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은 채 긴 호흡으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따듯하게 반겨주는 가족의 품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요즘입니다.

인생의 반려자이자 나눔의 가치를 더 깊게 깨닫게 해 준 레이먼킴, 그리고 딸과 함께 이런 동행의 기쁨을 오래도록 느끼고 싶다는 바람에서 ‘약속’과도 같은 우리 둘의 나눔 이야기를 소개해봅니다.

**아프리카 채석장에서 발견한 나눔의 가치 by 김지우**

오랫동안 기부와 후원을 이어 온 남편 레이먼킴과 달리 제가 나눔 활동에 본격 관심을 갖게 된 건 결혼 직후인 2013년 탄자니아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현지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아이들의 현실은 TV 화면에서 접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을 떠다마시고 학교 대신 채석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연필 대신 망치를 들고 종일 돌을 깨며 생활하는 아이들을 봤거든요. 그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곧바로 두 아이와 1:1 결연을 맺은 이후 후원을 이어왔습니다.

탄자니아의 아이들이 각자 꿈을 안고 커가는 밝은 모습을 사진으로 접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아이들의 엄마가 제 출산 소식을 듣고 귀한 천을 구해다가 정성껏 손바느질을 해서 보내주신 아기용 커튼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인연을 맺었던 열네 명의 아이들이 모두 건장한 성인으로 자라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가치를 발견했고 이제는 저희 가족의 특별한 날을 기념한 기부를 하거나 다른 연예인 친구들과 함께 장애영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직업’ 요리사에게 주어진 소명은 나눔 by 레이먼킴**

요리사는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직업일 수 있습니다. 최상의 식재료를 쓰면서도 남은 음식은 버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회에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자기만족감에서 후원을 시작하게 됐고, ‘결혼을 했으니까 한 명 더, 아빠가 됐으니까 한 명 더’ 하면서 후원 아동 수를 단순히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내 김지우 씨가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직접 행동하고 실천하는 나눔으로 저를 이끌곤 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약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만이 나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격언처럼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셰프 양성 프로그램 ‘SK 뉴스쿨’은 다른 곳보다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현재 형편이 어려운 요리사 지망생들에게 일터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젊은 셰프들이 스스로 성장하며 ‘오너 셰프’가 될 수 있도록 시드머니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이 없는 청년들이 저와 3년 정도 함께 하면 가게를 줘서 오너 셰프가 되도록 하고, 창업비용을 회수하면 그 돈으로 또 다른 가게를 열어 새로운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형태입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70%가 행운 덕분이고, 제가 받은 걸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돌려주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라면을 끓이듯 쉬운 것이어야 한다 by 김지우 & 레이먼킴**

가끔 거액을 기부하는 다른 연예인들을 보면서 ‘내 기부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닐까?’라며 걱정을 하면 레이먼킴은 단호하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나눔 활동은 마치 라면을 끓이듯 쉬운 것이어야 하고, 남에게 알려질 필요도 없으며, 단지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육아’와 비슷합니다.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아가도 세상이 처음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조금씩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고 보람을 알아가듯 나눔 역시 이런 ‘배움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나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눔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2. 소셜 현장 ‘S’가 간다

**다름 아닌, SUNNY 리더여야 하는 이유**

**SK SUNNY 15기 리더그룹 교육워크숍 현장 속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하려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구성원들을 리드할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얼마 전, 전국 3천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그룹 SUNNY를 책임질 리더그룹이 새로 선출돼 교육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는, 하지만 한 번 다녀오고 나면 ‘몰라보게’ 성장한다는 그 치열한 워크숍 현장을 S가 동행해 봤습니다.

**#‘청년 사회변화 인재’ 사관학교 ‘리더그룹 워크숍’**

한겨울의 추위가 담뿍~ 내려앉은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날씨에도 강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2019 SUNNY 15기 리더그룹 교육워크숍’(1월 11일부터 17일)이 열린 코바코연수원 강의실입니다. SUNNY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3년 설립한 국내 최대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인데요.

2018년까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나눠서 실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사회변화 프로그램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70명의 리더그룹은 내년 2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각자 SUNNY를 이끌며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기획해 실행하고 해외 청년 사회 혁신가와 교류하는 등 리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올해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니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뭘까? 뭐지? 궁금해 하는 저를 위해 10기 SUNNY 출신의 OB이자 재단 사무국에서 SI사업그룹 청년인재교육팀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석 매니저님(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올해 SUNNY 리더그룹 교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주셨어요. 정 매니저님은 “리더그룹이 국내외 사회문제와 SUNNY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문제 솔루션 프로세스를 학습하며 자원봉사 활동 등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기존에 SUNNY가 주력했던 3대 사회문제(아동·노인·장애)에서 확대해 △소외 없는 사회 △교육이 평등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이 지속 가능한 사회 △청년이 행복한 사회 등 5개 분야의 15개 사회변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게다가 리더그룹 운영도 글로벌 교류, 교육, SUNNY패밀리, 대외협력, 홍보 등 5개 부서로 개편해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높이고 글로벌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알려주셨죠.

(인포그래픽) 소외 없는 사회, 교육이 평등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 환경이 지속 가능한 사회, 청년이 행복한 사회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변화, 패기와 열정의 160시간**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 2시. 연수원 강의실에서는 ‘피어(peer) 멘토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지난 3일 동안 듣고 보고 고민한 내용을 활동계획서로 작성하는 SUNNY 리더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어느 한 사람 소외되는 이 없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집단지성을 발휘해 실행계획을 짜고, 솔루션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되묻네요. 또한 함께 할 SUNNY 모집계획부터 프로그램 운영비용 산출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엄지 척!

10개 넘는 전문가 강연과 실습, 실습, 실습, 그리고 팀워크를 통한 사회문제 솔루션 도출, 발표와 멘토링까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펼쳐지는 교육 일정. 이만 하면 지칠 법도 한데 매 순간 현장에는 강한 열기와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게다가 160시간을 동고동락하는 사이 70명의 리더그룹들은 꿀단지의 꿀처럼 서로 끈끈하고 친밀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S는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발표했던 4일 차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드디어 발표의 시간. 단 5분 안에 동료들을 설득하고 송곳 같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동료들의 조언을 듣는 긴장된 순간입니다. 5시간을 소개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 온 SUNNY 리더그룹들의 열정 가득한 프레젠테이션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는지 주요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릴게요.

**SUNNY 리더그룹이 제시한 다양한 사회변화 아이디어**

**“디지털 소외 NO! 어르신들 위한 무인화 시스템 교육”**

**대전충남지역 운영팀 전희설 리더써니**

사회변화를 향한 70개의 아이디어 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전/충남지역에서 활동할 전희설 SUNNY의 제안입니다. 최근 ‘무인화 시스템’의 일종인 키오스크 도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키오스크 사용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교육 봉사,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쉽게 무인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솔루션

**“생리, 부끄럽지 않아요~ 긍정적인 월경 문화 심어주기”**

제주지역 운영팀 신주연 리더써니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디어는 제주지역에서 활동할 신주연 SUNNY의 제안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성교육 시간이 충분치 않고 월경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생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여학생들이 많은데요, 신주연 SUNNY는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올바른 월경 지식과 월경용품 사용법을 알려주고 우리 월경 문화의 문제점을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솔루션

**“화재 시 발달장애인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려요!”**

수원경기지역 운영팀 김수호 리더써니 세 번째 아이디어는 화재 시 발달장애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지난 해 SUNNY 리더그룹에서는 지진 발생 시 발달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수원/경기지역 김수호 SUNNY가 불이 났을 때 장애인들이 대피 요령과 응급처치 등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육해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그려냈습니다.

(인포그래픽) 솔루션

SUNNY 리더들의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 여러 가지 문제를 포착해 내는 SUNNY 리더들의 예리한 시선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당당하게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들이 모두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제 옆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경청하고 있는 정우석 매니저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정 매니저님은 “사회문제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고 대학생들도 그러한 현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워크숍은 15기 리더그룹이 해당 지역의 사회적 기업, 프로보노, 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문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해가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했다고 하셨죠. 또한 “앞으로 SUNNY 활동을 할 때 참여 동기를 잊지 말고 사회문제를 직시하면서 당사자들과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리더그룹 발대식,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갈 70개의 태양이 뜨다**

이렇게 4일 차까지 사회문제 솔루션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직접 기획해보는 시간을 마친 SUNNY 리더그룹은 5일 차부터 상반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과 체험, 실습, 그리고 기획활동에 참여했어요. 이어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에는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반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표 및 피드백’을 거친 뒤 서울로 이동해 해단식을 가졌죠.

그리고 마침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임명장을 받고 발대식을 함께 하면서 15기 리더그룹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으며, 2019년 상반기 SK SUNNY 대학생자원봉사단 모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UNNY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이제 지역에 돌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자원봉사’와 ‘사회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발로 뛰게 될 청년 소셜 이노베이터들.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으로 긍정적 사회변화를 주도할 SUNNY 리더그룹의 열정과 도전 의지는 마치 70개의 태양이 동시에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눈부시고 따뜻합니다. 올 한해 ‘SUNNY’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청춘들의 무한도전을 저 S와 함께 모두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거죠?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바로가기

3. 숨어있는 SV를 찾다

**남태평양 섬 '니우에'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행복 만들기**

**한국인 대학생 3명 '인구유출 문제 솔루션' 싹 틔워**

적도 주변 남태평양 바다 위 1,000여 개의 섬나라 중 하나인 ‘니우에’. 사모아나 통가와 같은 인근 폴리네시아제도 섬들보다 훨씬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로, 한국에서는 꼬박 25시간을 비행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인데요. 작년 여름, 한국의 대학생 세 명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으로 무작정 날아갔습니다. 니우에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손에 쥔 채로요. 누가 봐도 무모했지만 이들은 한 달 만에 국가수반인 총리와 컨설팅 협약(MOU) 약속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세 명의 청년들, 도대체 니우에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기업 경영 전략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해 보자”**

“우리가 기업에서 배운 경영전략과 마케팅 지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해보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백종민(2014학번), 조영훈(2012학번), 송재민(2014학번) 세 학생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대학 학회에서 만나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인데요. 경영컨설팅 인턴십과 스타트업 근무 경험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업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경영학도들은 그간 익힌 전략을 ‘사회혁신’에 이용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ASSIST(Asia Sustainable Social Innovation Strategy Team) 팀이 결성됐고, 2018년 여름방학을 전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생인데다 3명밖에 되지 않고, 경제력도 없지만 뭔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렸죠. 특히 지도에 점처럼 찍힌 작은 도서 국가들에 주목했는데, 이들 모두 정치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 검증하고 나면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중에서도 ‘니우에’라는 나라를 선택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대학생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지닌 국가여야 하고, 정부에게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나 ‘해수면 상승’과 같은 문제보다는 ‘인구유출 문제’에 주목했고, 공식 인구가 2만 명 이상임에도 실 거주민은 1500명이 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를 겪고 있는 ‘니우에’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친 듯이 놀고, 토론하고, 설득했던 니우에에서의 3주**

목표가 정해지자 ASSIST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다시피 모여 자료를 찾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솔루션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행사나 항공사, 그리고 민간 재단과 교육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재원 마련에 나섰고, 니우에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교부와도 끊임없이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조해하던 차에 다행히 행복나눔재단과 협력하는 연세대 고등교육혁신원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비행기 값과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니우에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Step 1 니우에를 경험하다**

그렇게 도착한 니우에. 이곳에서 ASSIST팀은 ‘미친 듯이’ 놀고, ‘미친 듯이’ 연구하고, 또 ‘미친 듯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첫 3일간은 동굴탐험과 해양레저를 비롯해 ‘웨일 와칭 투어(whale watching tour)\*’까지 니우에만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체험했고, 니우에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주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니우에 사람들은 친절했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현지의 유명 가수를 만나 노래를 불렀고, 축제장 등을 동행하며 함께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등 마치 공연단처럼 활약한 덕분에 나름 ‘유명인’이 되었고 언론에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기사보기)

\* 웨일 와칭 투어 :산란을 위해 남태평양으로 돌아오는 고래 떼를 관광하는 프로그램

**Step 2 니우에를 설득하다**

현지 관광산업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관광객들을 인터뷰 한 결과, ASSIST팀은 ‘니우에 스테이’라는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관광과 연계된 숙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찾아, 섬 밖으로 떠나간 국민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지 체험을 즐겨하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며, 니우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파괴를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화려한 숙박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인구유출로 인해 생긴 빈집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제안한 것이죠.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니우에 스테이 프로젝트

이어 ASSIST팀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인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음알음으로 관광청과 통계청 등 다양한 부처 관계자 20여 명을 만났고, 마침내 토케 탈라기 총리(대통령)를 접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꽤 많은 준비를 해갔는데도 정부 관계자와 미팅이 잡힐 때마다 ASSIST팀은 밤새 토론하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고, 특히 부처별 관심사에 맞게 내용을 보완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Step 3 니우에가 인정하다**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관광청에서 PT를 했을 때는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며칠 뒤 찾아간 통계청 관계자 역시 ‘우리도 다 해본 것’이라며 가벼이 여기셨죠. 그런데 PT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더니 발표를 마친 뒤에는 활짝 웃으시고는 ‘우리만큼 니우에를 잘 아는 것 같다’며 흔쾌히 도움을 주셨어요. 가장 기쁜 순간이었죠.”

이렇게 정부 부처들을 거의 만나본 ASSIST팀은 니우에의 현실이나 정책 기조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더욱 자신감 있게 토케 탈라기 총리를 접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솔루션을 보완하고 소셜 앙트레프레너십을 강조하자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컨설팅 협정 체결에 흔쾌히 동의해주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사이트에 ASSIST팀이 만들어 운영할 프로모션 사이트를 연결하고, 카운터파트로 일할 정부 관리자도 지정해 준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자, 이젠 홈스테이를 제공할 주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ASSIST팀은 여기서 또 한 번 마케팅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코리안 나이트’라는 이벤트를 열어 한국음식을 대접하고 K-POP을 불러준 다음, 그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홈스테이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민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것입니다. 게다가, ASSIST팀은 니우에를 찾아온 각국의 관광객들을 붙들고 니우에 스테이 계획에 대한 설문까지 진행했는데요. 관광객들 역시 지역 주민과 상호작용을 하며 현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니우에 스테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모한 도전’을 ‘성과’로 만들어 준 믿음과 응원의 힘**

니우에 프로젝트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고 3주간의 일정을 마친 ASSIST팀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업이나 취업준비 외에도 지난해 쓴 경비를 갚기 위해 인턴활동까지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니우에 프로젝트는 아직 진행형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정책과 연계 프로그램, 마케팅 등을 고민하면서 플랫폼이 될 웹 사이트의 디자인과 기능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SSIST팀은 기회가 된다면 웹 사이트 제작을 위한 펀딩을 진행하고 한 번 더 니우에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전시켜보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가능했던 건 고등교육혁신원이나 행복나눔재단과 같은 서포팅 기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너무 무모해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부모님께서도 믿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고등교육혁신원은 실패해도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행복나눔재단 역시 사회혁신의 가치를 보고 응원해주셨어요.”

ASSIST팀은 이제 막 싹을 틔운 스테이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니우에 뿐 아니라 같은 사회 문제를 지닌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통해 경영전략 부문 커리어를 쌓고, 이를 사회혁신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갖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ASSIST팀 학생들과 같이 보다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좋은 사회혁신 아이디어가 싹트길 바랍니다.

**<ASSIST에게 ‘사회혁신’은?>**

**SVT: 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송재민: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한 켤레의 신발을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는 신발 브랜드 스토리를 접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 비즈니스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SVT: 사회문제 해결에 대학생(청년)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영훈: 사회 인식 변화나 지속가능한 사회 혁신을 고민하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기에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제도권이나 민간에서 지원을 받기도 유리하고요. 또 대학 때 경험이 사회진출 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재학 기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백종민: 경영 생태계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실패를 반복하다 결국 좋은 사업체 몇몇 개가 살아남듯이 사회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그중에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Trend & Review

**봄을 깨우는 여행, 마음이 따뜻해지는 숙소 Best 3**

**안동 ‘구름에’, 대구 ‘공감 게스트하우스’, 천안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다가오는 3월, 남도에서는 봄을 알리는 매화와 산수유, 유채가 꽃망울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장이 구수하게 익어가는 장독대 옆, 향기로운 봄꽃이 흐드러진 돌담길을 좋은 사람과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환해지는 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순 없겠죠?

상춘객으로 붐비기 전에 나만의 봄 여행을 미리 예약해보세요.

머물기만 해도 나눔이 되는 숙박업소들을 이용한다면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겁니다.

**구름에 노닐듯 비우고 선비의 절개로 채우다,**

**전통 리조트 ‘구름에’**

2월의 잔설 속에서 피어나 3월까지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홍매화는 흔히 선비의 절개에 비유되곤 하지요. 지금 이맘 때 가면 만개한 홍매화를 볼 수 있는 곳, 월영교 위에 피어오르는 낙동강의 물안개를 볼 수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전통 리조트 ‘구름에’입니다. 하회마을과 안동민속촌, 도산서원 등을 품은 ‘선비의 마을’ 안동에 위치한 ‘구름에’는 한옥의 장점과 리조트를 융합시킨 새로운 개념의 휴식공간인데요. ‘비움’과 ‘채움’이라는 두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 ‘구름에’에서는 고택 스테이를 통해 근심과 사념을 ‘비우고’, 다양한 전통 체험을 통해 풍성한 ‘채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울창한 숲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고택 군락에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역사를 간직한 7채의 고택(계남고택, 칠곡고택, 팔회당재사, 감동재사, 박산정, 서운정, 청옹정) 숙소가 있는데, 이들 고택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리함을 적절히 가미한 총 12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객실마다 현대식 욕실과 화장실, 실내 온도조절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첨단 보안 시스템을 통해 객실별 프라이버시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택 군락을 마주보고 있는 약 1만7,000여㎡ 규모의 한옥 시설(서원)에서는 고추장 담그기와 가양주 체험, 한복 대여, 다도 체험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신개념 전통문화 도서관 ‘북카페 구름에 오프(OFF)’에서는 독서와 휴식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온을 되찾고 싶다면 ‘구름에’에서 나를 ‘OFF’ 해보는 건 어떨까요?

위치경북 안동시 성곡동 745(도로명: 안동시 민속촌길 190)

홈페이지www.gurume-andong.com바로가기

연락처054-823-9001

**‘구름에’의 나눔 이야기**

2012년 행복나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설립한 사회적 기업 ‘행복전통마을’의 첫 번째 프로젝트.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있는 전통 가옥을 기반으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추구하자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구름에’의 시작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은 안동 지역주민과의 합작품이며, 주요 운영 인력과 식재료 등 유무형의 자원을 안동에서 충당하는 등 ‘구름에’의 이익은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됩니다.

**근대 역사를 탐방하며 가심비 큰 숙박을 즐기다,**

**‘공감 게스트하우스’**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을 포함해 근대로(路)의 여행 골목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 대구. 3.1만세운동길과 민족저항시인 이상화 선생 고택, 국채보상운동 서상돈 선생 고택, 계산성당, 제일교회 등 근대골목을 따라 천천히 스탬프를 찍으며 돌다 보면, 격동기 우리 역사의 한 정점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또한, 신천 둑길을 따라 ‘노래하는 시인’ 故 김광석과 조우할 수 있고, 대구 최대의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에 들러 납작만두, 칼국수 등 지역 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를 찾은 여행자들이 지친 발걸음을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감 게스트하우스’인데요.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지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다른 여행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 최근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죠. KTX 동대구역에서 약 10~15분정도 거리에 위치한 ‘공감 게스트하우스’(본점, 대구 중구 종로2가)는 부담 없는 가격과 깨끗한 실내, 친절한 직원들의 안내가 인상적입니다. 3~5층은 도미토리 형(2층 침대가 놓인 다인실) 객실로 방마다 화장실을 갖추고 샴푸와 린스, 바디클렌저 등 각종 위생용품이나 헤어드라이어기 등 편의용품들이 구비돼 있으며 아침마다 직접 내려주는 커피에 조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 네 명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정도로 대만, 중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라고 합니다.

위치(본점)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15(대구 중구 중앙대로79길 32)

홈페이지empathyguesthouse.modoo.at바로가기

연락처070-8915-8991

**공감 게스트하우스의 나눔 이야기**

사회적 기업 (주)공감씨즈(대표 허영철)가 2013년 설립한 ‘공감게스트하우스’. 도시빈민, 이주노동자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의사 부부가 건물을 구입해 무상임대로 기부한 데서 출발했으며, 3~5층의 숙박 시설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힘을 보태 마련됐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인 1층의 ‘카페 공감’과 2층의 배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교육문화공간이며, 3~5층이 객실입니다. 수익금의 20%는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열정 넘치는 청년 여행객들이 모여들다**

**‘오빠네 게스트하우스’**

‘천안’ 하면 떠오르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오래전부터 천안은 영호남, 그리고 충청지역의 문물이 어우러지는 교통의 요지였지만, 스쳐 가는 길목일 뿐 머무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천안은 젊은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쇠락해 가는 천안 구도심을 서울의 ‘홍대거리’처럼 바꿔보고자, 지역 청년들이 뭉쳐 문화예술 관광 특구를 만들어가고 있어서인데요. 2014년 문을 연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이하 오빠네)’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27세 이하 청년들이 패스 1장으로 열차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내일로 패스’가 인기를 끌면서 잠시 천안에 정차해 짧은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많아졌는데, ‘오빠네’는 이런 젊은 여행객들, 지역청년 창업가들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네’는 KTX 천안역 바로 근처, 명동거리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2층에 4인실, 6인실의 숙소가 있고 3층은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야외파티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숙소 내부에 색종이처럼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원색의 인테리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숙박비는 2만 원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수건 하나도 위생팩으로 포장해 비치할 정도로 위생과 청결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정수기와 커피포트를 비롯해 웬만한 생필품들은 모조리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처음 천안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손수 야경 명소를 안내하는 ‘오빠랑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니 참 ‘친절한 오빠네’입니다.

위치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63-2(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1)

홈페이지oppazip1.modoo.at바로가기

연락처010-2345-5072

**오빠네 게스트하우스의 나눔 이야기**

‘오빠네’ 최광운 대표는 ‘할렘화’ 되어버린 천안역 주변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 청년들과 함께 도시재생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료로 ‘청년복덕방’을 열어 창업 희망자에게 임대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청년들은 좋은 공간을 더 좋은 가격으로, 건물주들은 좋은 청년들을 파트너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년 공유공간인 <공간천안>을 오픈하는 등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5. The Social Innovators

1장 : 먹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려요! ‘맛있저염’ 김슬기(우).김현지(좌) 대표 편

2장 : 닭고기 콩 두부 우유 과일 잡곡밥...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식품들이지만 사람에 따라 자칫 독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3장 : 바로 만성콩팥병(신부전증)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국내성인 7명 중 1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지만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4장 : 먹었을 때 몸을 해치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물조차도 조심해서 마셔야 해서 환자들은 밥상 앞에서 ‘평생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5장 : 콩팥병은 완치가 없는 병이니까요.

6장 :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콩팥병을 앓고 실의에 빠졌던 한 청년이 자신은 물론 같은 환우들을 위해 용기 있는 도전을 했습니다.

7장 : 청년의 이름은 김슬기. 그는 다짐했습니다. “맛이 있으면서도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를 만들어 먹자. 그리고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식사를 나눠보자.”

8장 : 콩팥병 환자들은 나트륨을 줄인 ‘저염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맛있으면서도 해롭지 않은 식단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장 : 김슬기 씨는 다행히 그 뜻을 함께할 파트너 김현지 씨를 KAIST SE MBA에서 만나 해법을 찾습니다.SE MBA는 행복나눔재단과 KAIST 경영대학이 전문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MBA과정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경영전문교수진의 수업을 통해 창업 노하우를 배우고 해외연수는 물론, 업무 공간과 창업자금 투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0장 :. SE MBA 4기 졸업생인 김슬기·김현지 대표는 주식회사 잇마플을 세우고 맞춤형 저염식 식사 배송 서비스인 ‘맛있저염’을 시작합니다.

11장 : 콩팥병 환자들을 위한 진단표를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요리를 개발·조리해서 판매하는 서비스인데요.

12장 : 그냥 요리가 아닌 ‘안심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보내드립니다.13장 : “저염식은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14장 : 그 비결은 소금 대신 된장을 사용해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마늘, 청양고추, 발사믹 식초 등 다양한 재료로 단맛, 신맛, 매운맛, 감칠맛 등을 활용해 풍부한 맛을 내는 것인데요.

15장 : ‘맛있저염’은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저염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장 : 김슬기·김현지 대표는 환자나 그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서도 병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17장 : 앞으로 콩팥병뿐 아니라 식사에 제약이 많은 다른 질병의 환자식, 노인 식단도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18장 : ‘맛있저염’의 요리가 환자들의 희망을 키워줄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맛있저염 바로가기>

6. SV, 세계는 지금

섹터 간 협업 편

협업(Collaboration)의 중요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소셜 섹터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부와 민간, 사회혁신 조직이 힘을 모을 때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사회적 투자를 위한 조직 연합체인 ‘유럽벤처기부협회(EVPA)’는 이러한 섹터 간 협업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Cross-Sector Collaboration for Better Social Outcomes(2018)’라는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협업의 조건으로 △ 파트너들 간의 협업 의지 △협업 실적 △ 협업에 따른 성과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 중 ‘Big Society Capital(이하 BSC)’는 어떻게 이 조건들을 이끌어 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SC는 영국의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된 사회적 금융 지원 기관입니다. ‘사회 투자’란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BSC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섹터 간 협업이 시장 인프라와 전체 생태계를 조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BSC의 협업 파트너는 크게 공공기관(영국 정부), 사회적 금융 중개소, 그리고 민간 섹터입니다.

**BSC – 공공섹터**

**휴면예금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안 제정과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 정책 지지**

정부는 2008년 휴면예금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1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계좌 7,000억 원과 민간 재원을 바탕으로 BSC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BSC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및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지하는 등 공공영역과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BSC – 민간섹터**

**사회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은행 4곳과 협업**

민간 섹터 역시 BSC의 설립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내 대형 은행 4곳이 사회적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했고 휴면예금액에 비례한 매칭 펀드로 BSC 설립 자금 3,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로도 다양한 민간 기관과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BSC - 사회적 금융 중개소**

**사회 임팩트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환경 및 시장 조성**

사회적 금융 중개소와는 가장 활발한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BSC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선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사회적 금융 중개소에 자금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BSC는 자금 회수율이나 수익을 따지기보다,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투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 임팩트 평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BSC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 투자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2017년 BSC는 1억 유로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약 75%의 자금이 스타트업 지원기관에게 돌아가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섹터 간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이뤄가는 13개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통해 섹터 간 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리더십과 끊임없이 되풀이해도 지치지 않는 의지, 배움과 적응에 있어 뛰어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프로젝트 주도자는 소셜이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른 섹터의 파트너들이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측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섹터들이 모여 무언가를 함께 창조해냈다는 성취감은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섹터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시작 단계부터 협업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프로젝트 주도자는 사회적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섹터 간에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함께 세울 좋은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나 연륜보다는 ‘헌신적인 사람’이 파트너로서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BSC 사례 외 섹터 간 협업이 가져온 성공적인 사회 성과들을 ‘Cross-Sector Collaboration for Better Social Outcomes(2018)’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Cross-Sector Collaboration for Better Social Outcomes(2018)’ 바로가기

7. Social Talk Talk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동아리 루키 ‘2019 성과 발표회’ 개최**

청년 사회혁신가 양성 동아리 ‘루키(Lookie)’의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 성과를 ‘2019 성과 발표회’에서 확인해보세요. 특히, 미세먼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저소득층용 공기청정기 개발, 한국 전통 차(Tea) 문화 보존을 위한 영세다원 브랜딩 지원 등 대학생만의 톡톡 튀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돋보입니다.

**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 2018 앤어워드 디지털미디어 부문 위너 수상**

행복나눔재단의 홈페이지가 국내 최대 디지털미디어 시상식인 ‘2018 앤어워드(&Award)’에서 디지털미디어 부문 비영리/사회공헌 분야 위너를 수상했습니다! 영상,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재단 정보와 사업 활동을 직관적이고 임팩트 있게 전달했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행복나눔 홈페이지가 궁금하다면?

**에스브이TV, 이지앤모어가 선물이에요**

대학생 에디터들이 꼭 만나고 싶은 소셜 벤처 월경 셀렉트샵, 이지앤모어를 소개합니다

이지앤 모어는 왜 탄생했는지, 어떤 월경 용품들을 선택하는지, 시작박스 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에스브이TV에서 확인하세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15기 리더그룹 임명식 및 2019 상반기 봉사자 모집**

대학생들의 사회변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69명의 15기 리더그룹 임명식을 시작으로 2019년 사회변화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리더그룹과 함께 활동할 SUNNY 대학생 봉사자 모집이 3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SUNNY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게임 세상에서 현실을 바꾸는 임팩트 게임 플랫폼, 겜브릿지**

현실적인 그래픽과 캐릭터는 게임에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그 몰입감이 현실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왜 게임에서는 마냥 누군가를 해치고 빼앗아야 할까요? 게임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요? 게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 ‘겜브릿지’를 만나보겠습니다.

7. Event

2019년 황금돼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The Social Value Times Vol.7도 읽고 건강도 챙기고! 기부되는 OX퀴즈

모든 문제를 맞추시면 건강한 기부가 되는 “본죽 특전복내장죽”을 보내드려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 본아이에프(본죽)의 제품 중기부메뉴 스티커가 붙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품 금액의 일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됩니다.

이벤트 기간 : 2019.02.25. ~ 2019. 03.04.

2019년 첫 발행되는 The Social Value Times Vol.07과 함께하고 계신가요?정성스럽게 준비한 기사를 꼼꼼히 읽으셨다면 OX퀴즈에 도전하세요.여섯 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본아이에프(본죽)의 특전복내장죽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를 다 맞춰주신 후에는 팝업창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니 브라우저에서 팝업차단 해제를 확인해주세요.

OX퀴즈 응모 전 주의사항

1. 문제는 각 기사 관련 내용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2. 각 문제당 40초의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3. 한 문제라도 틀릴 시 이벤트 응모가 자동 종료됩니다. 문제를 풀기 전 신중하게 답변을 선택해주세요.